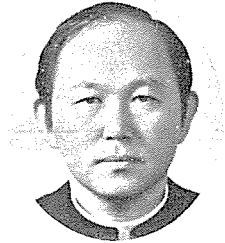


병원사목의 현황과 문제점



김 중 호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실장)

1. 20세기 의학안에서의 종교

20세기에 이르러 환자의 신체상태와 그의 정신적 태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새로운 견해에 입각하여 종교가 치유영역 안에서 중대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환자를 위한 사목의 중요성을 다시 자각하게 되었고 그 책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제 종교와 의학 양 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환자의 '전인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게 인식되었으며 여기에서 원목은 협조자로서 의료팀의 일원이며 의학 적 치료와 함께 정신적인 측면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환자의 신체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사회적, 감성적, 정신적인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과 원목팀이 함께 손잡고 상호보완하여 치유활동에 임해야 한다.

2. 현대병원 안에서의 원목활동

원목의 역할은, 첫째, 환자 대상의 목자적 역할이며, 둘째, 의료진에 대한 협조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에 원목이 개별적으로 환자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눈다. 여기에서 원목은, 환자가 병원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협조하고, 환자가 속

한 신앙과 공동체의 대변인으로 환자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인다. 또한 병원내에서의 종교의식과 성사를 집전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의 환자들은 특별히 원목의 도움이 요구된다.

• **새로 입원한 환자**: 대체로 새 환자들은 병원의 낯선 환경때문에 불안해 하는데, 원목의 방문은 환자의 불안을 덜어주고, 기꺼이 도움을 청하게 된다.

• **수술전 환자**: 수술을 목전에 둔 환자는 대개 고백성사를 청하거나, 용서·화해를 갈망한다. 따라서 적당한 정도와 방법으로 이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협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 **위독한 환자**: 이들은 불안·공포와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을 체험한다. 또한 가족, 의사나 간호원까지도 멀리하고 자신을 밀폐시킨다. 원목은 환자와 가족사이에 계속적인 대화와 유대가 지속되도록 도와야 한다.

• **장기환자**: 이들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회의를 느끼고, 격리된 현실을 절실하게 느낀다. 이들에게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인 인간관계 속에 정신적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동환자**: 최근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부모들의 지도보다도 더욱 필요한 것이 어린이 환자에게 직접 정신적 협력을 주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 **불치병 환자**: 불치병 환자의 가족들은 대개 자신들이 슬픔에 젖어 환자를 대할때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지며, 환자 역시 자신을 밀폐하고 대화가 줄어든다. 원목은 이들의 슬픔과 실의를 같이 나누어

이 글은 1988년 10월 28일 본 협회 제40차 세미나에서 발표할 주제강연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며, 환자가 정신적 위로와 안정을 찾도록 돕고, 틀에 박힌 협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개별적 환자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환자 집단에 대한 원목활동도 이루어지는데, 원목은 병원 시설에 따라 종교의식, 면담, 출판물 등의 활동을 통해 환자 집단을 도와줄 수 있다.

한편, 신자이거나 비신자이거나를 막론하고 병원

직원들 역시 개인적 문제들은 환자를 돌보는데 방해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원목은 이러한 병원직원들에게 조언과 상담자로서 집단 활동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직도 가톨릭교의 전교지역인 우리나라의 교회 병원에서는 원목활동이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모든 진료팀들을 위한 전교적 역할에 크게 한몫을 하는 영역이 된다.

3. 현재 가톨릭 병원내의 원목활동 현황

4. 병원 원목활동의 문제점과 전망